

## 건설동향브리핑<sup>1)</sup> – 건설 정책 및 경영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I. 건설 정책 동향

#### 1.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 경제 혁신을 통한 국민 행복 구현

– 민간 자본 활용한 사업 증가, 해외 플랜트 지원 증가 예상 –

건설동향브리핑 제451호(2014.3.3.) 박철한 책임연구원

#### ■ 박근혜 대통령,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 부문을 개혁하고, 창조 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이루어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목적은 2017년에는 3% 초반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을 4%로 제고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등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초석을 닦는 데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로 이를 위해 ① 공공 부문 개혁, ②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③ 사회 안전망 확충을 과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이를 위해 ① 창조 경제 구현, ② 미래 대비 투자 진행, ③ 해외 진출 촉진 개혁 구상을 과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 경제로 이를 위해 ① 투자 여건 확충, ② 내수(소비) 기반 확대,

③ 청년과 여성 고용률 제고를 과제로 하고 있다. 이 중 공공 부문의 개혁,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의 확대, 그리고 내수 확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사항이 건설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 공공 부문 개혁으로 향후 민간 자본 활용한 사업 증가 예상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이루기 위한 공공 부문의 개혁은 공공 부채의 관리가 주된 목적으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향후 LH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의 재정 사업이 일부 조정되고, 향후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진출 촉진 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화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000억원을 확충하는 등 향후 해외 플랜트와 관련된 금융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 부채 문제의 해결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 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간으로 발간하는 「건설동향브리핑」은 건설 경제·정책·경영 이슈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회지 [CEM Info] 색션에서는 「건설동향브리핑」 최신호 일부를 요약하여 게재 합니다. 소개된 전문은 [www.cerik.re.kr](http://www.cerik.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적공사비 적용시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을 조정해야**

- '실적공사비 적용 통해 공사비 절감했다'는 정책 홍보는 논리적으로 불합리 -

건설동향브리핑 제452호(2014.3.10.) 최민수 연구위원

**■ 실적공사비, 예산 절감 목적으로 2004년 도입돼 지속 확대 중**

예정가격의 작성 방법은 크게 i) 표준품셈을 활용하는 방식과, ii)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표준품셈도 상시 정비를 통해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 실적공사비 적용시에도 낙찰 하한율이 동일하다면, 저가 낙찰의 문제로 간주해야**

국토교통부는 예정가격의 현실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표준품셈의 87.6% 수준으로 실적공사비를 책정해 12.4%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적산 기준을 바꾼다고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하다. 즉, 예정가격의 산정시 표준품셈이 아니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낙찰률이 높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i) 국토교통부 외에 발주기관별로 실적 단가를 축적하여 활용하는 방안, ii) 정부 외에 복수의 민간 적산 전문기관에서 시장 단가를 축적하여 공표, 활용하는 방안, iii) 평균 투찰 가격 등을 토대로 시장 단가를 축적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적공사비의 적용 공종은 확정 가격으로 발주하거나, 혹은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에 따라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 하한율이나 최저가낙찰제의 저가 심의선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적공사비 적용 비율에 따라 예정가격을 보정하여 낙찰 하한을 산정 필요**

적격심사제의 가격 평가 산식에 반영된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방식을 전제로 낙찰 하한율을 산정한 것이므로, 실적공사비가 반영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보정하여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가격 대비 실적공사비 수준의 결정 방법은, 예를 들어 '계약 가격/평균 투찰 가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산정, 공표하거나, 혹은 품셈 대비 실적공사비 수준(85~

90%,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 2014년 공동도급 관련 제도 개선 동향**

-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일부 난제 해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

건설동향브리핑 제453호(2014.3.17.) 김민형 연구위원

**■ 지역·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도급 연장·확대**

정부는 건설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경제 민주화에 부응하여 공동도급을 통한 지역 및 중소 건설기업들의 지원을 계속 확대하였다.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적용은 시장 개방 대상 공사를 제외한 예정가격 262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2013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시행토록 함으로써 지역제한입찰 대상 공사보다 그 폭을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2013년 말까지가 시한이었던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시한을 연장하였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3항 및 부칙).

**■ 공동도급 확대와 더불어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핵심 현안 해소**

공동도급 확대와 함께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불합리한 현안을 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였다. 먼저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공동이행 방식 공사의 경우 계약 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배제하고 출자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 등).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워크아웃과 부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중소기업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사태를 막는 방안으로, 그 동안 업계에서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안이다. 다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계열 회사 간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금지하였다(계약예규 '공동도급 운용요령' 제9조). 즉, 정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계열 회사 여부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라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서 지역 및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 승인 요건을 명확화하였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지분율 및 분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 '중소기업 지원' 및 '우수한 품질의 확보' 모두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필요

핵심적인 난제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공동도급제도는 여전히 '확실성과 '검증 시스템 미비'에서 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공동도급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확실적인 최소 시공 참여 비율과 최대 구성 업체 수, 지역 업체 판단 기준, 부적격 업체 선별 및 경영 평가 시스템 등의 개선이 요망된다.

## II. 건설 경영 동향

### 1. 미국 건설산업 인적 자원 개발 방향의 변화와 시사점

- '역량 개발 방법과 교육·훈련 투자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

건설동향브리핑 제451호(2014.3.3.) 이복남 연구위원

### ■ 핵심 인재 발굴과 임직원의 직무 경력 관리 방식 활용 실태

U.S. Construction Industry Talent Development Report(FMI, 2013)에 따르면, 건설기업의 43%가 핵심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중 27%가 발굴과 역량 향상을 체계화시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건설기업의 약 12%가 핵심 인재의 발굴과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무 경력 프로그램(Career Development Path)은 산업체의 과반수가 넘는 61%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방식(12%)보다 허리에 해당하는 중간 관리자급의 역량 향상을 더 중요시(61%)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간 관리자급의 역량 향상을 위해, 부서장급의 교육 및 훈련 방법으로 외부 강사를 투입한 강의 방식이 35.8%, 내부 강사 활용이 21.8%, 실무 실습 방식이 10.3%, 각종 협회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7.4%로 나타났다. 사업 책임자급의 경우, 내부 강사 활용이 32%, 외부 강사 활용이 27%, 실무 실습 방식이 12.5%, 각종 협회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6.4%로 나타났다. 현장 소장급은 내부 강사 활용이 35.1%로 가장 높았다. 외부 강사 활용이 21.6%, 실무 실습 방식이 17.5%, 각종 협회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7.1%로 나타났다. 임직원 교육 및 훈련 방법을 혁신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민하는 과제로는, 전문공사 업체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유무선 매체 활용 방식의 확대, 화상 교육 방식의 도입, 젊은 계층의 채용 및 교육 훈련 강화 등이 거론되었다.

### ■ 역량 개발 투자와 방법 변화가 한국 건설기업에 주는 시사점

거대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예산은 삭감보다 소폭이지만 증액했다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은 인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만든다. 소수의 핵심 인재를 집중 양성하기보다 중간 허리층인 책임자급의 역량 향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수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전략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협력 업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업체에 대한 역량 향상도 사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건설기업에게도 교육 훈련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강의식 교육 방식의 활용 비중이 가장 높고 내부와 외부 강사의 활용 균형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관련 협회 단체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조직 구성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필요

- 조직 구성원의 극단적인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

건설동향브리핑 제457호(2014.4.14.) 최은정 책임연구원

### ■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소진 야기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과 조직의 복잡화로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다. 조직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직 내 구성원이 받는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직무 소진(Burnout)이다. 이는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성의 저하, 결근, 이직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건설산업 종사자들도 높은 근무 강도, 많은 하도급 구조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직무 소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 직무 스트레스 완화 수단으로서의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은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면서 조직의 효율성증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3가지 기능 즉, 첫째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 둘째 개인과 집단에 정보 전달 기능, 셋째 조직 구성원의 감정과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만족 요인 중 업무성과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직속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직무 스트레스의 감소 및 조직 효율성 증대와 가장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수주 분야, 기술 분야 등 모든 영역이 사람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산업인 만큼, 경영자는 조직의 목표 달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조직의 이러한 역할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인 직무 소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3. 인문학의 기업 경영에의 접목 동향과 과제

- 사례를 통해 본 세 가지 접목 유형 분석 -

건설동향브리핑 제458호(2014.4.21) 김영덕 연구위원

#### ■ 인문학 가치의 새로운 조명

2000년대 후반부터 인문학이 새롭게 조명을 받아 왔는데, '인문학 열풍'이라 불릴 만큼 학계는 물론, 산업계와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학이 각광받고 있다. 인문학이 새롭게 조명을 받기 이전부터, 학문적으로는 인문학과 공학, 의학, 경영학 등의 접목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문학과의 접목은 산업 및 경영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기업 경영에 있어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제품 디자인과 같은 생산, 서비스 등 영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 경영에 있어 인문학에 기반한 통찰력 있는 경영관 및 지식, 그리고 실질적인 인문학적 기법들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 ■ 인문학이 접목된 기업 경영의 세 가지 유형

첫째, 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함으로써 조직 내에 창의적 사고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적 사고를 고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현대하이스코, SK C&C 등의 기업에서는 사내에 인문학 강의 및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며, 웅진패스원은 '인문학 MBA'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문학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감성을 키우며, 리더십과 통찰력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

력 등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도 인문학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CEO를 대상으로 한 각 대학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둘째, 기업의 핵심 업무에 있어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인문학적 사고 및 접근 방식을 현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 삼성그룹 및 구글 등은 인문학 전공자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으며, JP모건과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금융 기업들도 인문학 전공자의 채용 비중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신세계그룹, 현대차그룹 등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의 채용을 위해 채용 평가 및 직무 적성 검사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접 인문학 전공자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인문학 전문가를 경영 자문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셋째, 경영 전략 수립 등 전략 기획 업무 분야와 제품 개발 및 디자인 등 생산 분야, 그리고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인문학적 지식과 사고를 활용하고 있다. IBM,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향후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 등 경영 환경을 예측하는 데 있어 인문학적 지식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삼성전자 디자인센터는 인문학 전공자의 디자인, 기술 인력과의 협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IT 업체들은 제품 개발시 인간 중심의 인터페이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많은 업종에서 고객의 감성과 사고를 자극하는 마케팅 활동 및 고객 서비스 체계의 개선 등에 있어 인문학적 관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